

『개벽』을 통해 살펴본 이돈화의 인내천 담론 전개

— 『개벽』 연재 「人乃天의 研究」를 중심으로

우 수 영*

요약

야뢰(夜雷) 이돈화(1884- 1950)는 『천도교회월보』, 『개벽』, 『신인간』 등 천도교 계열 잡지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함으로써 1920년대 천도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 대표적 활동으로는 당대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개벽』에 연재된 「人乃天의 研究」를 들 수 있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를 연재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인내천'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앞선 여러 글에서 드러냈다. 이후 그는 『개벽』에서 '인내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을 붙인 9편의 글을 통해 본격적으로 동학 정신인내천의 의미를 풀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개벽』에 연재된 「인내천의 연구」를 통해 이돈화가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새로운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민중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담론적 실천을 천착해 보았다.

이돈화는 『개벽』 창간호인 1920년 6월호부터 1921년 3월호까지 9회에 걸쳐 「인내천의 연구」를 연재했다. 「인내천의 연구」 1-3회에서 이돈화는 현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앙이 요청되고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신앙은 융합 신앙임을 밝힌다. 4회부터 유·불·선을 융합한 최수운의 기초 사상이 본격적으로 개괄되며, 8회에서는 보편 종교 소질로 초인적 신앙, 희망, 경건, 구제, 희생, 인애가 거론되었고, 이 소질들이 인내천의 관념으로 재해석된다. 마지막 9회에서 이돈화는 인간의 심령계가 우주의 근원이자 중심이기에 인간계가 우주의 중심이며 만사만리(萬事萬理)는 인간 심령계의 표현으로 규정한다.

* 경북대학교 강사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라는 9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인내천에 대한 의문들을 이론적으로 풀어나갔고 인내천의 의미와 인내천주의의 지향을 구체화하는 담론을 전개한 인물이다. 더 나아가 인내천의 정신을 주장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내천주의자로서 또 다른 새로움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소설 『동학당』의 창작이었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에서 보편 종교의 소질로 초인적 신앙(信仰), 희망(希望), 경건(敬虔), 구제(求濟), 희생(犧牲), 인애(仁愛) 6가지를 논의하였다. 그러한 종교적 소질들이 소설 『동학당』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이돈화가 소설 『동학당』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시도는 인내천의 종교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의미와 정신을 민중에게 알리고자 한 인내천주의자로서의 담론적 행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돈화, 동학, 인내천 담론, 『개벽』, 『인내천의 연구』, 소설 『동학당』

목차

1. 서론
2. 천도교 종지(宗旨)로서 부각 되는 인내천
3. 진화한 최후 종교의 지향인 인내천주의
4. 인내천주의자로서의 소설적 실현, 『동학당』
5. 결론

1. 서론

야뢰(夜雷) 이돈화(1884-1950)는 『천도교회월보』, 『개벽』, 『신인간』 등 천도교 계열 잡지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함으로써 1920년대 천도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 대표적 활동으로는 당대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개벽』에 연재된 『人乃天의 研究』(이하 『인내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대부분 논자들은 이돈화의 『인내천의 연구』를 종교적 의미보다 사회개조 사상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생산된 글로 파악하고

있다.

허수는 이돈화의 논설은 사람의 본성을 신앙성과 사회성 양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고 했다.¹⁾ 그가 파악하기에 이돈화의 ‘인내천주의’는 종교적 색채에서 벗어나 사회사상적 성격이 포함된 ‘도덕의 개조’라는 실천적 용어로 전환된 것이다. 김정인은 이돈화가 교리서 『대종정의(大宗正義)』²⁾에서 ‘인내천’을 화두로 시도했으며, 그 후 『인내천요의(人乃天要義)』에서 그 의미가 집대성되었다고 했다.³⁾ 조남현은 이돈화 동학론의 특징을 계급의식 구현에서 찾았다.⁴⁾ 그는 이돈화가 인내천 사상을 시대정신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마르크시즘을 수용했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일제라는 당대 불가피한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무시될 수는 없지만, 이돈화가 전개한 인내천 담론은 기본적으로 동학이라는 한국 자생의 종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인내천의 연구』를 『개벽』에 연재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인내천’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앞선 여러 글에서 드러냈다. 이러한 인내천 담론의 기본 의미를 살피는 것이 간과되고, 오히려 담론의 사회성이나 정치성이 더 부각되어 논의되고 있다. 인내천 담론의 기본 종교적 의미부터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인내천 담론의 사회성이나 계급의식으로 확장 연결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돈화는 앞선 고민을 추슬러 본격적으로 『개벽』에서 ‘인내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9편 글을 통해 인내천의 의미를 풀어나갔다. 본 연구는 『개벽』에 연재된 『인내천의 연구』에서 이돈화가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의

1) 허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138면.

2) 김용휘에 따르면, 『대종정의』는 손병희의 명에 따라 천도교 교리를 정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07년 출간된 교리서이다. 그는 『대종정의』는 인내천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최초로 설명한 책으로 파악했다.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시학』25, 한국사상사학회, 219면.

3)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131면.

4) 조남현, 『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성性 주의(외)』, 범우, 2007, 526-527면.

의미를 파악하고, 그 새로운 종교가 갖추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민중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담론의 전개를 고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천도교 종지(宗旨)로서 부각 되는 인내천

1864년 최수운의 순교와 1898년 최시형의 순교 이후, 동학 3대 교조가 된 손병희는 1905년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명한다. 동학은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도 되었고 최시형을 통해 교세가 확장 발전되었으나, 일본과 조선 정부의 탄압으로 손병희 3대 교조에 와서는 일대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랜 기간 동학에 가해진 탄압을 겪어 왔던 손병희는 동학의 공인(公認)을 가장 중요 목표로 삼고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손병희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백인종 러시아를 배척하고 황인종 일본을 도와 동양 평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일본 정부에 1만원을 기부하였다.⁵⁾ 손병희는 일본 세력이 지원하면 동학의 공인이 가능할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같은 해 1904년 동학 교단이 설립한 진보회는 일진회로 통합된다. 동학 교단이 일진회에 참여함으로써 목인의 상태이지만 비합법적인 지하종교라는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손병희가 1906년 귀국 당시 천도교 내부는 문명파, 친일파, 보수파로 크게 구분된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었다. 손병희를 중심한 천도교 문명파는 국민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노골적으로 친일활동을 하는 일진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다. 또한 천도교 교단은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내걸고 무엇보다 교세 확장에 전력하였다.⁶⁾

천도교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천도교 교단이 정부나 일본세력

5) 『본교력사』, 『천도교회월보』, 천도교 중앙총부, 1915.5, 19면.

6)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20, 일지사, 1994, 123면.

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일이었다. 문명과 손병희 세력은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일진회와 천도교의 가장 큰 차별성을 ‘종교적인 측면’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천도교 교단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교단의 정치 활동은 자제하면서 계몽 활동에 전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손병희는 1906년에 귀국하여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을 공포하고 근대적 교단 체제 구성에 힘을 쏟았다. 또한 교리를 체계화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잇달았다. 이러한 교단의 움직임 속에서 1907년 교리서 『대종정의(大宗正義)』가 출간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었던 용어는 ‘인내천(人乃天)’이다.

水雲大神師는 天道敎 元祖라 其思想이 博으로 從하여 約히 倫理的 要
點에 臻하니 其要旨는 人乃天이라⁷⁾

위 교리서에서는 동학이 천도교의 전신(前身)임을 드러내기 위해 동학의 교조 최수운이 천도교의 원조이며 그의 사상 요지는 인내천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내천이 천도교의 종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후 이돈화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천도교의 종교적인 기본 개념으로 인내천을 강조하였고 이론적으로 인내천의 의미를 정립하기 시작한다.

宗敎取締에 관해서는 明治 39년(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로 내지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敎·侍天敎·大倣敎·大同敎·太極敎·圓宗宗務院·孔子敎·大宗教·敬天

7) 『大宗正義』, 2면. 최동희, 『천도교의 인본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2,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977, 257면 재인용.

教·大成宗教 등의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⁸⁾

총독부는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 공인종교로 인정하고 그 외 조선의 종교는 유사종교로 취급했다. 이에 천도교 역시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에 교단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활동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천도교 기관지 『천도교회월보』의 간행이었다. 이돈화는 1910년 무렵 상경하여 천도교회 월보사 입사 이후 글쓰기나 강연 등 천도교 개념 정립 및 교육에 치중했다. 천도교의 요지인 인내천에 대한 이돈화의 이론적 활동은 『천도교회월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或曰 現今萬物競爭時代に 宗教統一이 到底 莫可能이라 하나 是는 公腦 有하느니 公腦有하면 公理에 自服하며 公理에 服하면 統一은 勿論이라 現今各敎의 意見과 方法이 殊異하야 彼此間 自信力이 堅固하느니 是亦 天道即 吾敎部分中一科者也라 吾敎는 天胞中 萬宗教 萬哲學 萬眞理를 總括하야 浩浩宇宙의 大라⁹⁾

위에서 인용된 이돈화의 『宗教統一은 自然의 勢』에서는 본격적인 천도교의 이론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 글의 요지는 현재 혼란스럽고 경쟁적인 시대이지만 조선에서 종교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돈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의식이 있다는 전제 아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있기에 종교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8)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77. 김승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한국기독교와 역사』4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33면, 재인용.

9) 이돈화, 『宗教統一은 自然의 勢』, 『천도교회월보』11, (명치44년)1911.6, 28-29면.

종교이자 우리의 종교인 천도교가 우주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진리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며 드넓은 우주의 큰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돈화가 전개한 천도교의 이론 전개는 ‘인내천주의(人乃天主義)’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돈화의 ‘인내천주의’라는 용어는 『개벽』의 『人乃天의 研究』 연재에 앞서 1918년 6월 『반도시론』에 발표한 『천도교의 역사 및 그 교리(속)』에서 언급된다. 이 글에서 이돈화는 최수운의 기초적 정신사상을 구체적으로 천(天)의 관념, 도(道)의 관념, 교(教)의 관념 그리고 수련의 목적으로 풀어 논의한다. 그중 천의 개념을 범신론(汎神觀) 상에 입각한 인내천주의(人乃天主義)라는 용어로 개괄한다.

天의 精神은 卽心인디 心の 精神은 卽天이라 故로 天과心은 根本에서 一이오 二가안이니 此를 具體的으로 하면 天이 萬物을 造후는 後는 其精神이 萬物의 個體에 歸宿호였는故로 萬物은 各其自天이 有호야 其自天의 靈能으로써 自己를 開拓호다 云호는 意味일지라 譬컨디 大호月이 小호草露의 中에 宿호과如히 天호宇宙의 精神은 小한人의 心에 歸宿호였다는 觀念일진디 故로 自天을 離호야 彼天이 無호며 此天을 離호야 自天이 無호니 此乃人卽天 天卽人이라 云함이로다¹⁰⁾

위의 글에서 이돈화는 하늘의 정신을 인간의 마음으로 설명하며 하늘의 정신과 인간의 마음 이 둘은 하나라 설명했다. 즉 하늘이 만물을 만든 후, 하늘의 정신이 만물 개체에 자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늘의 큰 달이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에 자리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 그는 우주적 대정신인 대천(大天)과 개체적 정신인 자천(自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사람이 하늘이요 하늘이 사람이라는 서술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로써 이돈화는 인내천주의를 인류가 목적하는 실제적 신앙이며 윤리적 신앙이자 천인합일적 신앙인 최후 종교의 진리로 내세우기 시작한다.

10) 이돈화, 『天道教의 歷史 及其 教理(屬)』, 『반도시론』2-6, (대정7년)1918.6, 40면.

3. 진화한 최후 종교의 지향인 인내천주의

3·1운동 이후 교단지도부가 거의 투옥된 천도교 교단은 1919년 9월2일 지도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젊은 지도층을 주축으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창립한다.¹¹⁾ 그 다음해 1920년 천도교 교단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교리강연부의 명칭을 천도교청년회로 바꾸었다. 천도교청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종합지 『개벽』의 창간이었다.

『개벽』은 다양한 1920년대 당대의 관심 내용이 총망라 수록되어 있는 종합지였다. 『개벽』 필진들은 무엇보다 혼란의 시기를 맞아 민족을 이끌어가고 선도해가고자 했던 계몽잡지로서의 의무를 간과할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천도교 기관지로서의 한국 고유의 사상 동학(천도교)을 포덕하고자 하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다양한 시대적 요청들이 한 곳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개벽』은 영향력이 지대한 당대 매체였다.

『개벽』의 창간사에는 인류와 신이 상호 매개된다.

哲人は 말하되 多數 人民의 聲은 宥 神의 聲이라 하였나니 神은 스스로 要求가 없는지라 人民의 소리에 應하야 其 要求를 發表하는 것이요, 神은 스스로 渴仰이 없는지라 人民의 소리에 應하야 示한 其 渴仰을 나타내는 것이라. 多數 人民의 渴仰하고 且 要求하는 소리는 宥 神의 渴仰하고 要求하는 소리니 이곳 世界開闢의 소리로다.

神은 無何有의 一物로 붙어 進化를 始作하였도다 無有를 肇判하고 太陽系를 組織하고 萬物을 내었나니 이 宥 宇宙의 開闢이며 사람은 神의 進化한 者로 萬物을 代表하야 漁獵을 始하며 農業을 營하며 商工業을 起

11)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사, 2006, 192-193면 참조.

하야 進化에 進化를 加하는 中 오늘날 이 世界大改造라 하는 革新의 氣運을 맞보게 되었나니 이곳 開闢의 開闢이엇도다.¹²⁾

『개벽』의 창간사는 다음을 표방한다. 세계 곳곳 다수 인민의 소리는 신의 소리이다. 신은 인민의 소리를 통해 그 동경하고 사모하는 바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다수 인민의 갈망 소리는 신의 갈망 소리인 것이다. 신이 유무를 시작하여 태양계를 조직하고 만물을 생성한 개벽 이후 오늘날 세계는 개벽의 개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창간사의 내용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인민이 곧 신이라는 점이다. 즉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신이자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의 소리인 것이다. 모든 만물 특히 그중 사람의 소리는 신이 사람을 통해 발화하는 소리이다. 사람은 신이 진화한 존재이다. 결국 시대를 개벽하고 만사를 개벽하고 사람을 개벽하는 이 시점에서, 『개벽』을 통해 발하는 소리는 신의 소리이자 인민의 소리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개벽』 창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신의 요구이자 인민의 요구인 개벽 시대를 열고자 했던 『개벽』의 위상은 당대 여론을 선도했다.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등 천도교 청년회 간부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개벽』에 다수의 글을 올렸고 더불어 여러 차례 전국 순회 강연도 하였다. 『개벽』 필진 중 이돈화는 특히 천도교 교리 정립 및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돈화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에 발표한 교리 연구를 집약하여 『인내천 요의』(1924)를 출간했다. 그 저서의 바탕이 된 글은 『개벽』에 연재된 「人乃天의 研究」이다.

이돈화는 『개벽』 창간호인 1920년 6월호부터 1921년 3월호까지 9회에 걸쳐 「인내천의 연구」를 연재했다.¹³⁾ 1920년에 연재된 1회부터 6회까지

12) 『開闢』, 창간호, 창간사, 1920.6.25.

13) 『開闢』 1920년 11월호는 미발행이다. 그래서 「인내천의 연구」 6호는 1920년 12월호에 발표되었다.

는 『人乃天의 研究』라는 동일 제목으로 각 회가 연재되고, 다음해 1921년에 연재된 7, 8, 9회에서는 『인내천의 연구 7, 8, 9』라는 표기 아래 『意識上으로 觀한 自我의 觀念』, 『疑問者에게 答함』, 『人은 果然 全知全能이 될가』라는 독립된 제목이 명기된다. 즉 앞 6회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7, 8, 9회는 앞서 논의된 이론에 바탕하여 관련 상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내천의 연구』 1회는 ‘새사람이 되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새사람이되라 새思想을너호라 새知識을베호라 새事業을하라 새藝術을創造하라 온갖것을새것으로벌려노코 새것으로構造하고 새것으로粧飾하라 나는새것을 慕仰하는者로라 새를 憧憬하는 者로다. 새것이잇슴으로 사람은사람다운價値를나타내는것이오 새것이잇슴으로 世界는世界다운光彩가 나타나는것이다 나는 過去의 歷史의모든어진이를 崇拜하되마지안 노라 (중략.인용자) 그들은이미났은 人物이엇다 그러나내가 그들을崇拜하는것은 그들이 過去그들의時代에 여러가지새것을 創造한서나답이엇다¹⁴⁾

이 부분은 1회 첫 단락이다. 여기서 이돈화는 새사람이 되기를 주문한다. 그는 새 사상, 새 지식, 새 사업, 새 예술을 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있어야 세계는 세계답게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이돈화는 단군을 시발로 역사적 새 인물들이 조선에 많이 있다고 열거한 후 그 중 조선적이고 동양적이고 세계적인 독창적 종교 사상을 창조한 최수운을 부각한다.

乙卯春三月大神師 | 草堂에 臥하야晝로써 眼을遮하엿더니 時에 一似

14) 이돈화, 『人乃天의 研究』, 『개벽』 창간호, 1920.6, 39면.

僧似俗의異人이大神師에게拜하고曰吾|金剛山楡岾寺에在하여百日祈禱를移하고偶然히塔下에서小眠이라기起한즉異書가塔에在한지라一見한즉其字劃書義가塵世에未見한바요凡智의理解치 못할바라故로是書의解者를求코져하야殆히萬地를遍踏하더니公을見하매처음으로是書의有傳을知하리로소니請컨댄公은其眞을靈會하사天賜를負치勿하소서大神師|納하야見한즉儒佛仙家流中아즉見치못하든바로古無今無의異書러라異人에게請하야曰아즉案에留하야두라其人이曰吾三日後에반듯이再來하리니公은意會하소서異人이果然其日에來하였거늘大神師曰意會하였노라僧이拜謝曰公은實로天人이로다不然한즉엇지此一部의眞을意會하리요公은珍藏하소서하고遂히階에下하더니因忽不見이어늘大神師처음으로神靈의幻像을知하시다是書|果然天書이며書義의大略은人乃天의義이며書中에又四十九日祈天의義|有한지라故로書義에依하야遂히其意를決하시다(중략 인용자)此異僧의天書로써滿足타안이하고스스로四十年過去原稿를抹殺하고此에自力自修를加한지數年을經한後|庚申四月五日到至하야上帝와直接面會談判을開始하고그에서처음으로覺한바有하다自信함이是니是|大神師|前聖後聖을超越하야完然히統一宗主가된所以가안인가¹⁵⁾

인용의 전반부에서는 최수운의 체험이 서술되고 있다. 을묘년(1955년)에 중 갈기도 하고 속인 갈기도 한 이인(異人)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백일기도 후 탑 아래 있는 낫선 책을 발견하였다. 이인은 그 책의 의미를 풀고자 최수운을 찾아왔다. 삼일 후 최수운은 이인에게 그 책의 뜻을 알았다고 하자, 이인은 그 책을 잘 간직하라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 책의 대략적 의미는 인내천이었다.

최수운을 찾아온 이인이 전해준 천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인내천이었다’라는 서술에 주목하면, 결국 최수운의 깨달음의 시발은 인내천에 바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동학의 시발에서부터 ‘인내천’은 상

15) 이돈화, 위의 글, 48-49면.

제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수운의 신비한 경험은 앞서 서술된 보리수 아래 유혹을 물리치며 수양한 석가의 경험, 들판에서 악마의 유혹에 불응한 예수의 경험, 그리고 천사가 준 책을 읽은 마호메트의 경험과 동격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최수운 역시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들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겪은 인물로는 부족함이 없다.

더 나아가 최수운이 석가, 예수, 마호메트보다 한층 뛰어난 점은 인물의 후반부 서술에서 파악된다. 이돈화는 글 서두에서부터 새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였으며, 자신이 과거 역사적 인물들을 숭배하는 이유를 새로움의 창조에서 찾았다.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보다 최수운이 뛰어난 점은 새로움의 창조와 관계된다. 최수운은 이인이 준 천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의 생각과 글을 말살하고 스스로 수양하고 상제와의 직접 면회를 통해 얻은 깨달음 이후 모든 종교를 통일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고 미래 새로움으로 나아간 인물 최수운은 통일 종주가 될 수 있었던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

『인내천의 연구』 2회에서는 여러 논자들의 주장이 소개된다. 그들은 현재 새로운 신앙이 요청되고 있고 미래의 새로운 신앙은 융합 신앙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인내천의 연구』 3회에서는 앞 2회에 이어 고고형의 이론이 집중 소개된다.

大神師 | 庚申年四月五日 | 大覺하신後 | 그徒弟의問에應하야曰 吾道는天道니라 그리하야吾道는今不聞古不聞之事요 今不此古不此之法이라 宣言하섯나니 此宣言에依하면大神師의儒佛仙統一은 儒佛仙各其의敎理를 此附援引하야 骨董飯의으로 此를融合한것이안이오 엇던新한理想의 下에서 이를合一케된것일지로다 換言하면 大神師의儒佛仙合一은 大神師가強히그를合一코저함이안이오 修練의結果 大覺의究竟 | 엇던理想이表現되었고 그表現된理想을鮮割한結果 | 儒佛仙이 各其그理想의一部分인것을 始

覺하였다함일것이안인가 16)

위 인용은 이돈화가 일본인 학자 고교형(高橋亨)의 이론을 소개한 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부분이다. 여기서 이돈화는 최수운의 깨달음과 유불선 통일의 선후 관계를 해명한다. 즉 최수운이 경신년 사월 오일 큰 깨달음 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도는 지금도 들은 적이 없고 과거에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요,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는 법이라 한다. 고교형의 이론과는 달리, 최수운의 유불선 통일은 유불선 각 교리를 비빔밥(骨董飯)처럼 각각을 서로 조합하여 융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 아래 이를 합일한 것으로 이돈화는 파악했다. 다시 말하면 최수운의 유불선 통일은 수련의 결과이자 큰 깨달음의 궁극인 것이다.

『인내천의 연구』 4회에서부터 이돈화는 인내천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먼저 인(人)을 천(天)과 매우 흡사한 유형적 천(天)으로 풀이한다.

大神師는 寧히 有神論을 主唱하여 一切의 宇宙의 萬物이 神의 精神下에서 生成하였다 論하였나니 故로 東經大全劈頭에 曰『蓋自上古以來春秋先代四時盛衰不遷不易不亦天主造化之迹昭然于天下也』¹⁷⁾ 함으로써 明確히 此宇宙의 上에는 此宇宙를 支配하며 統轄하는 天主가 有함을 指함인안인가 然이나 大神師의 所謂天主의 觀念은 個體的인 人格의 上帝를 謂함인안이오 汎神의 卽精神의 意味함인데 精神의 神이라함은 一切宇宙現象을 支配하는 靈의 眞善美를 概念함이라 (인용자 중략) 大宇宙에는 大宇宙뿐만한 精神이 有할지니 吾人은 此 大宇宙의 大精神을 稱하여 天主라하도다 그 리하여 此大宇宙의 精神과 人의 精神은 根本에서 唯一의 實在가되나니 故로 吾人은 神을 大宇宙에서 見함과 共히 個體我即人에서 또한 同一의 神

16) 이돈화, 『人乃天의 研究』, 『개벽』3호, 1920.8, 74면.

17) 최제우, 『東經大全』, 『布德門』, 慶州開刊 癸未仲夏.

을見할만하도다

然한데 宇宙는 此大精神의 進化發達로써 今日의 現象에 至하였슬리라 卽 宇宙는 一一切物인데 一切物은 一神이며 人은 一切物中一動物인데 動物은 一切物의 最進化한者이며 結局人은 動物中 最進化한者로 卽神의 最進化한者로 萬物의 靈長이며 天地의 主人公될만한 資格이 茲에 表顯하였도다¹⁸⁾

이돈화는 범신관(汎神觀)에 입각한 최수운의 유신론(有神論)에서 천주의 개념을 설명한다.¹⁹⁾ 그가 언급하는 최수운의 천주의 개념은 인격적 천주가 아니라, 우주 내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진선미(靈的 眞善美)이다. 이돈화는 우주 내 모든 현상에 존재하는 ‘대우주(大宇宙)의 대정신(大精神)을 천주(天主) 즉 신(神)이라 명명한다. 그 결과 우주의 정신과 사람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실재가 되고, 신이 대우주에서도 존재하고 사람 개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주의 대정신에서 신을 볼 수 있고 사람 개체에서도 신을 볼 수 있으며, 우주 모든 만물 중 최고로 진화한 존재 사람은 우주 주인공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이다. 즉 이 부분을 통해 대정신이 천주이고 천주가 사람 개체라는 인내천의 근본 원리가 설명되고 있다.

安心歌中 | 一節에 『하염업은이것들아 나는 都是 밋지말고 한울님만미 덧서라 네몸에모셨스니 捨近取遠하단말가』云한句節에서 大神師의人乃天主義는 青天白日과가티들어났도다 그리하여 大神師는 人乃天主義를 呪

18) 이돈화, 『人乃天의 研究』, 『개벽』4호, 1920.9, 48면.

19) 이돈화는 『동경대전』의 『포덕문』 첫 구절로 최수운의 유신론을 풀이한다. 이돈화가 여기서 인용한 포덕문 구절은 ‘蓋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不亦 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개자상고이래 춘추질대 사시성쇠 불천불역 불역 천주조화지적 소연우천하)’이다. 그 의미는 ‘먼 옛날부터 계절의 성함과 쇠함이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음을 통해 천주의 조화가 천하에 밝고 분명하게 드러남이다. 이로써 세계 모든 존재와 현상에서부터 천주의 조화와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음이 설명된다.

文十三字「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에 簡單히 表顯하였나니²⁰⁾

이돈화는 『동경대전』 『안심가』의 ‘하염업은이것들아 나는都是밋지말고 한울님만미덧서라 네몸에모셨스니 捨近取遠하단말가라’는 구절을 가져온다. 그는 최수운이 이 구절을 통해 민중에게 인내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실천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서술한다. 최수운이 19세기 말 당시 민중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상황과 1920년대 초 당시 민중의 무지를 일깨우는 이돈화의 상황이 같다. 이돈화는 대천(우주의 대정신)과 자천(사람의 개체적 정신)이 합일되는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는 당대 민중에게 안심가를 거론하며 인내천주의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13자 주문(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의미를 통해 인내천주의가 명백하게 표현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曰降靈之文 何爲其然也 曰至者 極焉之爲 至氣者 至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研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今至者於斯入道 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請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 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 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²¹⁾

『동경대전』의 「논학문」에서는 주문 21자 전체가 풀이되고 있다. 앞의 단락은 강령 주문 여덟자의 해설이고 뒤의 단락은 본주문 십 삼자의 해설이다. 「논학문」에서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의 여덟자 강령주문은 ‘지금 한울님의 기운이 나의 기운과 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

20) 이돈화, 앞의 글, 49면.

21) 최제우, 「論學文」, 『東經大全』, 癸未仲夏 慶州開刊.

미로 풀이되고 있다. 최수운이 특히 강조하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십 삼자 주문에는 ‘각자 안에 천주를 모시면 천주의 덕과 합일을 이루고, 사람의 일생동안 천주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는 결국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천주의 덕이 나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극한 성인의 경지 더 나아가 천주의 경지에 일치함을 알려준다. 이것이야말로 인내천에 감응하고 실천하는 인내천주의자의 수련방법이 되는 것이다.

1920년에서 1921년으로 연도가 바뀐 후 연재된 7회 『인내천의 연구』는 독립된 소제목과 함께 발표된다. 7회는 『意識上으로 觀한 自我의 觀念(人乃天의 연구 其七)』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이돈화는 의식으로 파악되는 세계를 과학의 세계로,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를 종교적 세계로 구분한다. 이 지점에서 이돈화는 가지계에서 불가지계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본래 욕구를 거론한다. 이처럼 불가지계인 종교적 세계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인내천주의에 입각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미완성의 사람이 참된 방식과 참된 수단으로 인격 완성을 수행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8회 역시 소제목이 명기된다. 8회 『疑問者에게 答함(人乃天의 연구 其八)』에서 이돈화는 보편 종교의 소질을 열거한다. 그가 열거한 종교적 소질은 ①초인적 신앙 ②희망 ③경건(敬虔) ④구제(求濟) ⑤희생 ⑥인애(仁愛)이다. 이돈화는 이들을 인내천의 관념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인내천주의는 이미 초인적 세력을 전제하므로, 인내천주의는 인성복능(人性伏能)이라는 위대한 세력에 의해 자력적으로 무한의 인격 개발에 노력한다. ②인내천은 인성복능을 통해 모든 희망을 달성하고자 한다. ③인내천은 이미 자중(自重)·자경(自敬)·자신(自信)·자호(自護)를 통해 복능성(伏能性)을 계발하고자 한다. ④인내천은 스스로 자신을 구하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므로 자력으로 무한향상의 진화를 도

모한다. ⑤인내천은 자력적 종교정신으로 자신의 덕성수양 및 인격향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함에 아낌이 없는 고상한 관념이다. ⑥인내천은 사인여천(事人如天)에 바탕하여 인애를 실천한다. 이상으로 언급된 종교적 소질들이 신구 종교의 상이함을 드러낸다. 이로써 인내천주의는 민중이 요청하는 최후 진화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 연재인 9회 『人은 果然 全知全能이 될가 (人乃天의 연구 其九)』는 문답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답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만물(萬物)을 주관하는 신(神)의 존재와, 하늘과 같다는 사람의 전지전능에 대한 문답이다.

吾人の心靈界는 直히宇宙의中心이되어 모든因果律과모든規範의 所出하는바이니 吾人の心靈界는 卽君의所要하는一切眞善美의根源이며 百善의本이며 無生無滅·不漏不增의 體니라 (중략 인용자)

更言하면 宇宙와我, 我와萬物은 總히唯一의心靈界의表顯이며 그리하여그心靈界의中心은 宇宙到處에 存在치아니한處가업나니 人間界에在하여宇宙의中心을求코저하면 人의心界가곳그宇宙의中心이되나니 萬事萬理 | 總히 人을心靈界의表顯이니라 22)

신 존재 질문에 이돈화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한다. 나의 심령계(心靈界)는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인과율과 모든 규범을 소출하는 바, 나의 심령계는 군이 요청하는 일절 진선미의 근원이며 모든 선의 근본이며 무생무멸·무루무증(無生無滅·不漏不增)의 물체이다. 우주와 나, 나와 만물 모두는 유일 심령계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심령계의 중심은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 인간계에서 우주의 중심을 찾고자 하면, 인간계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되니 만사만리(萬事萬理)가 모두 인간 심령계의 표현이다.

22) 이돈화, 『人乃天의 研究』, 『개벽』9호, 1921.3, 53면.

결국 전지전능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만물 구경의 원리인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자 만물을 총괄하는 진선미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인내천의 의미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라는 9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시대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종교를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인내천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내었으며, 인내천의 의미와 인내천주의의 지향을 구체화하는 담론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인내천의 정신을 주장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내천주의자로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그것은 소설 『동학당』의 창작이다.

4. 인내천주의자로서의 소설적 실현, 「동학당」

이돈화는 동학이 천도교로 개명된 1905년 이후 천도교 교리와 교단 체제의 확립에 탁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1920-30년대 당대 기록에 따르면 이돈화는 글보다 말에 더욱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일반 민중을 대하면 민중적으로, 농민을 대하면 농민적으로, 그리고 부인·아동을 대할 때도 모두 그 수준에 맞춰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청중의 열렬한 인기를 끌었다.²³⁾ 이돈화는 쏟아지는 강연 요청을 마다하지 않았고 성심껏 대중 강연에 임했으며 그 결과 그의 강연 청중은 천도교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았다. 그는 이처럼 말로 수행하는 대중적 강연뿐만 아니라 지식인을 위한 글도 다수 발표한 인물이다. 더 나아가 그는 말로 하는 대중 강연이 아니라 글로 대중을 만나는 소설에 관심을 두고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돈화는 『개벽』 시대를 마감하고, 일제 말기 탄압이 극심한 30년대

23) 필자 미상, 『이돈화』, 『혜성』1-6, 개벽사, 1931.9, 53면. 허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93면 재인용.

중반에 소설을 창작한다. 이돈화는 창작 문인은 아니지만 1935년에는 장편소설 『동학당(東學黨)』을 탈고하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1935년에 탈고되었으나 일제의 극심한 검열로 인해 발표되지 못하고 교단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 후 발표되었다. 작품 중간중간 서사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지 못한 점, 원고의 유실 부분이 많은 점 등은 일제가 행한 언론 검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돈화의 『동학당』을 해제하여 『소설 동학당』이란 서명으로 최근 2014년 단행본을 발행한 채길순은 그 후기²⁴⁾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동학당』은 1935년 탈고되었으나, 이 원고가 해방 후 6·25를 거치면서 소실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홍정식(洪晶植, 교단관계자)씨가 원고를 보관해보다 1965년 공개했다. 이 소설은 1965년에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에 2회 실렸으나 어떤 사정에서인지 중단되었고, 10년 뒤인 1975년도에 15회에 걸쳐 다시 연재되었다.²⁵⁾

위 채길순의 후기는 이돈화의 『동학당』 원고가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 2회 분만 연재되었고 이어 1975년 15회가 재연재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실재와 다르다. 『신인간』에 수록된 이돈화의 소설 『동학당』 연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돈화의 『동학당』은 1968년 10월 1회로 『신인간』 연재가 시작된다. 이후 『동학당』은 원고가 완전하게 탈고되지 못한 채 1973년 3월 14회로 그 연재가 마무리 된다. 그리고 채길순이 서술한 것과 달리, 『동학당』은 『신인간』에 1975년 재연재 되지 않았다.

1968년 10월부터 『신인간』에 연재된 이돈화의 『동학당』 상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 이돈화, 채길순 해제, 『동학의 지엄한 서사의 숲, 역사소설 동학당』, 『소설 동학당』, 모시는 사람들, 2014, 290-293면.

25) 채길순, 위의 글, 291면.

- 이돈화, 『동학당』1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0.(통권258호)
- 이돈화, 『동학당』2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1.(통권259호)
- 이돈화, 『동학당』3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2.(통권260호)
- 이돈화, 『동학당』4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1.(통권261호)
- 이돈화, 『동학당』5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2-03.(통권262호)
- 이돈화, 『동학당』6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4.(통권263호)
- 이돈화, 『동학당』7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5.(통권264호)
- 이돈화, 『동학당』8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6.(통권265호)
- 이돈화, 『동학당』9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7.(통권266호)
- 이돈화, 『동학당』10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8.(통권267호)
- 이돈화, 『동학당』11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9.(통권268호)
- 이돈화, 『동학당』12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10.(통권269호)
- 이돈화, 『동학당』13회, 『신인간』, 신인간사, 1970.01.(통권271호)
- 이돈화, 『동학당』14회, 『신인간』, 신인간사, 1970.03.(통권273호)

본 논의에서는 이돈화의 『동학당』원고가 최초 정리되어 연재 발간된 텍스트라는 점에 그 가치를 두고, 천도교 교단지 『신인간』에 연재되어 수록된 이돈화의 소설 『동학당』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에 『신인간』 수록 소설 『동학당』을 중심으로 본 4장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돈화의 『동학당』에서는 수운(최제우), 해월(최시형), 의암(손병희)가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동학과 천도교의 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서사의 구성이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 9편의 글에서 자신의 종교나 도(道)를 동학이라든지 천도교라든지 하는 분명한 용어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저 오인(吾人)의 종교, 최후 진화한 종교, 인내천 종교 등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용어는 결국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무극대도 동학(東學)의 정신에 맥이 닿아 있다.

더 나아가 천도교와 동학을 연결하려는 이돈화의 의도가 소설 『동학당』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당시 조선의 자생적

종교이자 사상인 동학을 명명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동학당』의 제목에서부터 동학을 거론하고 있으며 소설 속 인물의 계보를 통해 동학 정신이 천도교에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의도했다.

수운 선생이 내놓으신 무극대도의 감로수는 큰 가뭄에 단지를 만난 것과 같아 대중들이 찬송하는 주문 소리는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새 세상을 창조코자 하는 새 도덕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나 새것은 새것만으로 커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낡은 것과 투쟁을 하게 되는 법이다. 말하자면 낡은 것은 새것에 대해서 수화상극(水火相剋)이 된다. 낡은 것이 자기의 세력을 영원히 보존하자면 새것의 존재를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 새것과 낡은 것은 부득이 충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법이다.²⁶⁾

위 인용을 보면,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무극대도를 향하는 주문 소리가 인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여기서 주문 소리는 새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덕의 부르짖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돈화는 앞서 『인내천의 연구』의 첫 편 첫 문장 ‘새사람이 되라 새思想을 너호라 새知識을 배호라 새事業을 하라 새藝術을 創造하라 온갖것을 새것으로 벌려노코 새것으로 構造하고 새것으로 粧飾하라 나는 새것을 慕仰하는者로라 새를 憧憬하는 者로다’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세계는 세계다운 광채를 드러낸다는 논의를 펼쳤다. 이러한 논의가 소설 『동학당』에서 새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을 무극대도로 향한 동학 주문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민중의 부르짖음은 신구의 충돌이자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충돌이며 이는 필연의 현실로 강조되고 있다.

이돈화는 앞서 『인내천의 연구』에서 종교적 소질로 ①초인적 신앙 ②

26) 이돈화, 『동학당』2회, 『신인간』 1968년 11월호 (통권259호), 신인간사, 1968.11, 144면.

희망 ③경건 ④구제 ⑤희생 ⑥인애를 논의하였다. 그러한 종교적 소질들이 『동학당』에서 인물 최수운을 통해 장면화 되고 있다. 새 세상을 열고자 하는 새로운 인물은 역시 초월적 세력을 가진 대능력자이다. 그 존재가 최수운으로 형상화된다. 최수운은 상제와 소통하며 무극대도를 직접 받은 남다른 능력자이다. 그러기에 그는 관에서 자신을 잡아갈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의연하게 피하지 않았고, 서울로 압송되는 중에 철종의 죽음을 직각하고 북향사배 통곡을 한 초월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초월적 인물을 그림으로써 초월적 인물을 본체로 하는 초인적 신앙이 이해될 수 있다.

최경상은 경주 검곡(劍谷) 사람이다. 검곡은 용담서 서북으로 삼십 리를 격한 곳이다.²⁷⁾ 경상은 빈천한 사람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와 품팔이로 삼십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므로 그는 글자도 모르며 지벌도 없으며 말도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생이 생각한 네가지 조건을 구비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해서 변변히 인사도 아니한 사람이 많았지만 선생은 홀로 그를 마음속에 두고 여러가지로 시험해 봤다. 누구보다도 정성이 있고 공경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선생은 잘 알았다. (중략 인용자) 선생은 『오늘부터 자네는 나를 대신해서 무극대도의 큰살림을 맡아보게』 하였다. 경상은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어쩔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열어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무극대도를 맡는다는 말씀은 천만부당하줄 압니다』 (중략 인용자) 그리고 수운 선생은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이라는 호를 주고, 이날부터 선생자신이 먼저 최경상을 해월이라 불렀다.²⁸⁾

최경상은 최수운이 귀하게 여기는 정성, 공경, 믿음을 가진 인물이

27) 해월 최시형의 초명은 최경상이다.

28) 이돈화, 『동학당』 2회, 『신인간』 1968년 11월호 (통권259호), 신인간사, 1968.11, 147-148면.

다.²⁹⁾ 최수운은 최경상을 무극대도를 정성껏 믿고 공경을 실천하는 인물로 판단한 것이다. 당대 인식과 달리 최수운이 보여준 새로움은 문벌이나 학문이 아니라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도를 수행하는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최수운의 새로움을 통해 최경상은 최수운의 후계자가 된다. 훗날 해월 최경상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하며 인애를 실천하는 인물로 거듭난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초인적 신앙에 대한 경건의 신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애의 마음을 실천하는 인물로 해월이 부각되고 있다.

작가 이돈화는 수운을 새로운 시대를 연 새로운 사람으로, 해월을 사인여천의 정신 아래 공경과 인애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결정적으로 동학 3대 교조 의암 손병희야말로 이돈화가 주창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손병희의 난봉꾼 경력에 대해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즉 어지러운 세상에 ‘평민의 자식으로 인품이 잘난 사람은 모두 난봉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³⁰⁾ 그러기에 난봉꾼 손병희가 구제와 희생을 통해 새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은 변화무쌍하게 형상화 된다.

『동학당』에서, 나이 많은 조카 손천민이 난봉꾼 어린 삼촌 손응구에게 찾아가 동학 입도를 권유한다.

『이익이요? 당장 이익이 나지요. 동학을 하면 우선 삼재팔난을 면할 수 있답니다.』 손응구가 이익이 뭐요하고 묻는 말에 손천민은 이익답으로서 손응구를 달래 불작정으로 삼재팔난을 면한다는 말을 꼬집어 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손응구는 돌연간 변색을 하고 『여보 나는 삼재팔난이

29) 『동학당』에서 최수운은 자신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네 가지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스승인 자신과 통하는 마음, 위험을 참고 극복하는 근기(根氣), 제자를 통솔하고 포용하는 인격, 무극대도를 이해할 지식이다. 이돈화, 『동학당』2회, 146면 참조.

30) 이돈화, 『동학당』13회, 『신인간』 1970년 1월호 (통권271호), 신인간사, 1970.01, 180면 참조.

돌아 이세상이 망하기만 기다리는 놈이요. 그래 이런 망할 놈의 세상은 그대로 두고 나혼자 삼재팔난을 면하고 살아서는 뭐하오 여보 그런말 듣기싫소 어서가요」하고 담배대를 들어 재떨이를 두어번 두들기더니 담배를 큼직하게 피워가지고 필필피우면서 용같이 올라가는 연기를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손천민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얼른 말 경우를 돌려 가지고 「아니오 삼촌님이 말을 잘못들었오, 동학이 어디 한사람의 삼재팔난을 면한다는게요 이세상 전체의 삼재팔난을 면하게 한다는말이지요. 이 세상에 동학이 퍼지고 지금과 같이 망할세상 고쳐져 새 세상이 되는 날이면 전쟁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흉년도 없어지고 양반쌍놈도 없어지고 부자빈자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학이 새 도란 말이요, 큰도란 말이요, 금불문 고불문의 대도대덕이란 말이오 이렇게 좋은 도를 삼촌님도 같이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하고 손천민은 한시간 동안이나 동학에서 말하는 보국안민의 위치를 똑똑히 설명했다.³¹⁾

동학의 흐름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손응구라는 인물이 의암 손병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손병희의 아명은 응구(應九)이다. 손천민은 나이 적은 삼촌 손응구에게 찾아가 동학 입도를 권유한다. 손천민은 손응구에게 동학의 도가 공맹의 도보다 훨씬 더 큰 도라 한다. 손응구는 손천민이 두고 간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후 「동학당」의 서사는 동학에 입도한 손응구가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에 집중된다. 동학에 입도한 손응구는 사람이 달라졌다. 그는 난봉 짓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짚신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다. 생활과 태도가 달라진 새 사람 손응구는 해월을 만나러 간다. 손응구를 본 해월은 ‘손응구의 의기는 천하를 주어도 바꾸지 않으리

31) 이돈화, 「동학당」13회, 184면.

라'하며 의암(義菴)이라는 호를 붙여준다. 의암이 된 손응구라는 존재는 여러 충돌을 겪으면서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사람의 탄생으로 그려진다.

『동학당』에는 평범한 동학도도 다수 등장한다. 아버지가 원님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은 이필, 살기 힘들어 산 속 도적패가 된 장천달, 해월을 풀어준 수교 지달준, 신실한 동학도 김상근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인내천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자신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민중을 구제하는 희생을 아낌없이 실천한 살신성인의 인물이다.

장천달은 그제야 이 필이가 주었던 글을 끄내어서 봉투를 뜯고 사연을 읽기 시작하였다.

『내가 여러분과 최후의 작별도 못하고 가만히 떠나게 된 것은 사세가 어쩔 수 없어서 그리된 것이나 인정으로 말하면 참을 수 없는 설움이 솟아오릅니다. 나의 이번 길은 최후 영결의 길입니다. 나는 이길로 추풍령으로 가서 문경을 치고 그곳에서 우리 선생의 영혼을 따라 갈 작정이요, 관군이 일월산을 떠나는 날 여러분은 조금도 지체를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들만 하시오. 그리고 최 해월 선생을 따라서 후회회를 기다리시요.』 (중략 인용자)

이 글을 본 동학군들은 그제야 이필의 깊은 뜻을 알았다.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필이가 일월산에서 죽지 않고 문경으로 간 것은 오로지 동학군들을 살린 뒤에 자기 혼자 죽을 작정인 것이었다.³²⁾

장천달은 산속에서 도적질을 하다가 이필을 따라 동학군으로 나선 인물이다. 그는 이필이 동학군 부하들에게 남기고 간 편지를 동학군 앞에서 읽는다. 그 편지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문경 관군을 치러간 이필의 마음이

32) 이돈화, 『동학당』9회, 『신인간』 1969년 7월호 (통권266호), 신인간사, 1969.07, 104-105면.

드러나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동학군은 자신들이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관군을 문경으로 불러들인 이필의 희생적인 마음을 알게 된다. 동학군은 부하들을 구제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애를 실천한 이필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다. 여기서 이돈화는 이필을 긍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필이라는 인물은 1871년 영월에서 민란을 일으킨 이필제를 연상하게 한다. 역사에서 이필제(李弼濟, 1825-1871)는 해월의 만류에도 교조 신원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던 생각 없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는 집권층이 가진 역사적 관점일 수 있다. 반면 이돈화의 소설 『동학당』의 이필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부하 동학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려 깊은 인애의 행동가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소설 『동학당』에서 시도한 이돈화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최후 종교의 담론인 인내천은 관념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진리를 포괄하는 최후 종교이자 새로운 종교는 천도교이며, 그 정신은 하늘과 사람이 다름 아니라 같음을 피력하는 인내천이다. 이와 같은 인내천 담론을 이돈화는 현실 아래 말로써 글로써 전개한 인물이며, 나아가 그 정신을 실천하는 서사 속 인물을 통해 인내천의 의미를 민중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다. 이처럼 인내천주의자 이돈화가 전개해 왔던 인내천 담론의 정점에는 소설 『동학당』이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결론

이돈화(1884-1950)는 『천도교회월보』, 『개벽』, 『신인간』 등 천도교 계열 잡지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함으로써 1920년대 천도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 대표적 활동으로는 당대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개벽』에 연재된 『人乃天의 研究』를 들 수 있다.

이돈화는 『개벽』에서 ‘인내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을 붙인 9편의 글을 통해 본격적으로 동학 정신 인내천의 의미를 풀어나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벽』에 연재된 『인내천의 연구』에서 이돈화가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새로운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민중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그의 담론적 실천을 천착해 보았다.

이돈화는 『개벽』 창간호인 1920년 6월호부터 1921년 3월호까지 9회에 걸쳐 『인내천의 연구』를 연재했다. 『人乃天의 研究』 1-3회에서는 현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앙이 요청되고 있고 미래의 새로운 신앙은 융합 신앙임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인내천 종교는 신진리를 내포한 신종교이며 그 종교의 시발자인 최수운은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이상을 제시한 위대한 새사람으로 부각되었다. 『人乃天의 研究』 4회에서 이돈화는 최수운의 기초적 사상을 본격적으로 개괄하였다.

『人乃天의 研究』 5-7회에서 이돈화는 흑암주육의 ‘실재(實在)가 곧 신(神)이라하는 흑암주육의 이론에 대해, 실재는 다만 실재일 뿐 종교적 신이 되지는 못한다는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 8회에서 이돈화는 보편 종교의 소질로 초인적 신앙, 희망, 경건, 구제, 희생, 인애를 거론하며 이들을 인내천의 관념으로 재해석하였다. 마지막 9회에서 그는 인간의 심령계가 우주의 근원이자 중심이기에, 인간계가 우주의 중심이며 만사만리는 인간 심령계의 표현이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라는 9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인내천에 대한 의문들을 이론적으로 풀어나갔고 인내천의 의미와 인내천주의의 지향을 구체화하는 담론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인내천의 정신을 주장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내천주의자로서 또 다른 새로움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소설 『동학당』의 창작이다.

이돈화는 앞선 『인내천의 연구』에서 보편 종교의 소질로 초인적 신앙, 희망, 경건, 구제, 희생, 인애 6가지를 내세웠다. 그러한 종교적 소질들이

소설 『동학당』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면화 되었다. 결국 이돈화가 소설 『동학당』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시도는 인내천의 종교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민중에게 알리고자 한 인내천주의자로서의 담론적 행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최제우, 『東經大全』, 癸未仲夏 慶州開刊.

_____, 『龍潭遺詞』, 癸巳刊.

『天道教會月報』, 천도교 중앙총부, 1-296호, 1910.8.-1937.6.

(천도교 중앙총부 편, 1976년 영인본)

『開闢』, 천도교 중앙총부, 1-72호, 1920.6.-1926.8.

(천도교 중앙총부 편, 1969년 영인본)

夜雷, 『人乃天의 研究 其一』, 『개벽』창간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06.

_____, 『人乃天의 研究 其二』, 『개벽』2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07.

_____, 『人乃天의 研究 其三』, 『개벽』3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08.

_____, 『人乃天의 研究 其四』, 『개벽』4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09.

_____, 『人乃天의 研究 其五』, 『개벽』5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11.

_____, 『人乃天의 研究 其六』, 『개벽』6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0.12.

_____, 『意識上으로 觀한 自我의 觀念 (人乃天의 研究 其七)』, 『개벽』7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1.01.

_____, 『疑問者에게 答함 (人乃天의 研究 其八)』, 『개벽』8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1.02.

_____, 『人은 果然 全知全能이 될가 (人乃天의 研究 其九)』, 『개벽』9호, 천도교 중앙총부, 1921.03.

李敦化, 『東學黨』1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0.(통권258호)

_____, 『東學黨』2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1.(통권259호)

_____, 『東學黨』3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8.12.(통권260호)

_____, 『東學黨』4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1.(통권261호)

_____, 『東學黨』5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2-03합병.(통권262호)

_____, 『東學黨』6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4.(통권263호)

_____, 『東學黨』7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5.(통권264호)

_____, 『東學黨』8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6.(통권265호)

_____, 『東學黨』9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7.(통권266호)

_____, 『東學黨』10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8.(통권267호)

_____, 『東學黨』11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09.(통권268호)

_____, 『東學黨』12회, 『신인간』, 신인간사, 1969.10.(통권269호)

_____, 『東學黨』13회, 『신인간』, 신인간사, 1970.01.(통권271호)

_____, 『東學黨』14회, 『신인간』, 신인간사, 1970.03.(통권273호)

2. 단행본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윤석산,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한양대출판부, 1999.

_____, 『주해 동학경전』, 동학사, 2009.

이돈화, 『新人哲學』, 천도교 중앙총부, 1982(1924 초판).

_____, 『人乃天要義』, 天道教 中央宗理院 布德課, 大正十三年(1924).

_____, 編述, 『天道教 創建史』, 天道教 中央宗理院藏版, 昭和八年(1933).

_____, 채길순 해제, 『東學黨』, 모시는 사람들, 2014.

조남현, 『이돈화 - 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성성 주의(위)』, 범우, 2007.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허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3. 논문

우수영, 『한국 현대 동학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9.

_____, 『『천도교회월보』 수록 소설의 담론 전개』, 『현대소설연구』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_____, 『수운 최재우의 콘텐츠 활용에 대한 시론-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66, 동학학회, 2020.

임형진,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 『동학학보』22, 동학학회, 2011.

장규식 외, 『일제 식민지시기 이돈화의 저작과 천도교 교리 근대화 작업의 귀결』, 『한국학논총』4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8.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19, 동학학회, 2010.

조성환, 『현대적 관점에서 본 천도교의 세계주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4,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허수, 『1920년 전후 이돈화의 현실인식과 근대철학 수용』, 『역사문제연구』9, 역사문제연구소, 2002.

_____, 『동학 천도교에서 '천(天)'개념의 전개』, 『개념과 소통』10,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2.

황선희, 이돈화의 사상연구-인내천논증을 중심으로, 『祥明史學』1, 상명사학회, 1993.

_____, 『이돈화의 사상 연구』, 『동학학보』11-2, 동학학회, 2007.

<Abstracts>

The Evolvement of a Discourse on Lee Don-hwa's
Innaecheon(人乃天) of Having been Examined
through 『Gaebyeok(開闢)』
—Focusing on 『Research of Innaecheon(人乃天)』 Serialized in
『Gaebyeok(開闢)』

Woo, Soo-Young

Lee Don-hwa(1884-1950) is a figure who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Cheondogyo(天道教) with the vigorous drafting activity through the journals in a branch of Cheondogyo such as 『Cheondogyohoewolbo(天道教會月報)』, 『Gaebyeok(開闢)』, 『New Human(新人間)』. Its representative activity can be taken 『Research(研究) of Innaecheon(人乃天)』,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Gaebyeok(開闢)』 of having exerted a great influence upon the masses of the day.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a meaning of new religion that Lee Don-hwa advocates in 『Research of Innaecheon』, which was serialized in 『Gaebyeok』, and to inquire into a discursive attempt, which had strived to allow the people to understand a meaning and a value of the new religion.

Lee Don-hwa published serially 『Research of Innaecheon』 over 9 times from the June Issue in 1920 to the March Issue in 1921 as the initial number of 『Gaebyeok』. In series number 1-3 for 『Research of Innaecheon』,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which a new person and a new faith are requested in the present age, and about which a new religious

belief in future is the convergence faith. In series number 4, Lee Don-hwa summarized Choe Su-un's basic thought in full swing.

In series number 8, Lee Don-hwa reinterpreted these things as the idea of Innaecheon with mentioning superhuman power's faith, hope, piety, salvation, sacrifice, humane affection as the qualities of universal religion. In the last series number 9, he prescribed that the human world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at Mansamanri(萬事萬理) is the expression of human psychic system because a human being's spirit world is the origin and the center of the cosmos.

With releasing the writings of nine volumes titled 「Research of Innaecheon」, Lee Don-hwa proceeded with theoretically solving questions about Innaecheon that is raised from the standpoint of other religion, and developed a discourse that specifies a meaning of Innaecheon and the orientation of Innaecheonism. Furthermore, he attempted another newness as the Innaecheon ideologist who asserts the spirit of Innaecheon and tries to practice its spirit. It is the creation of the novel titled 「Donghakdang(東學黨)」.

Lee Don-hwa discussed 6 things beforehand in superhuman faith(信仰), hope(希望), piety(敬虔), salvation(求濟), sacrifice(犧牲), human affection(仁愛) as the qualities of the universal religion in 「Research of Innaecheon」. Such religious qualities were specifically made into a scene through the novel 「Donghakdang」. A new attempt that Lee Don-hwa showed through the novel 「Donghakdang」 can be considered to be the climax of a discursive step as the Innaecheon(人乃天) ideologist who intends to practice its spirit and to notify it to the public without staying only in the religious belief of Innaecheon.

Key words: Lee Don-hwa, Donghak[東學] discourse of Innaecheon, 「Research of Innaecheon[人乃天]」, The novel 「Donghakdang[東學黨]」, 『Gaebyeok[開關]』

투 고 일 : 2020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24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